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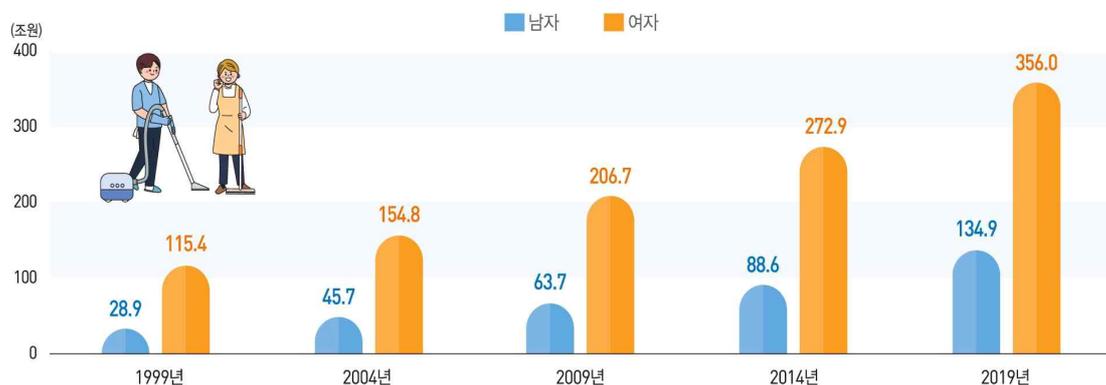
가사노동 서비스는 누가 생산하고 누가 소비했을까? -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 결과 -

통계개발원(원장 송준혁)은 국민시간이전계정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넓히고 이용자들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KOSTAT 통계플러스」 2023년 겨울호(12.22. 발간)에 국민시간이전계정 심층분석¹⁾ 결과를 게재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주요 분석내용을 미리 소개하고자 한다.

가사노동 서비스는 누가 얼마나 생산했을까?

2019년 생활시간조사를 기초로 산출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가치는 490.9조 원으로 GDP의 25.5%에 상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생산한 가사노동 서비스는 356.0조원으로 남성이 생산한 134.9조원보다 2.6배 많은 수준이다. 연령계층별로는 노동연령층(15~64세)이 410.0조원(83.5%), 노년층(65세 이상)이 80.9조원(16.5%)를 분담하였다. 시계열로 보면 남성과 노년층의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 비중이 1999년 각각 20.1%, 8.4%에서 2019년 27.5%, 16.5%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성별 가사노동 서비스 생산(1999~2019년) >



1) 본 연구는 통계청 경제통계국 경제통계기획과 오정화 사무관, 배수진 주무관, 김지현 주무관이 수행하였음

가사노동 서비스는 누가 얼마나 소비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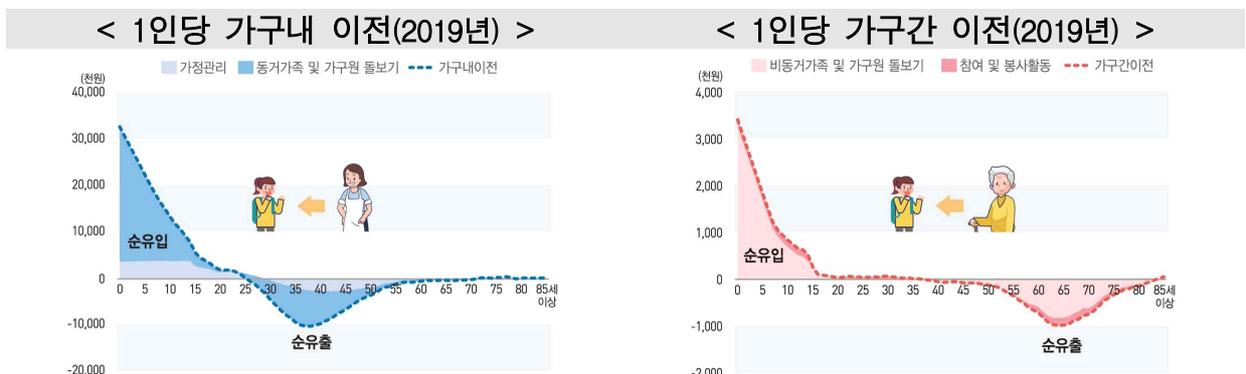
2019년 기준으로 유년층(0~14세)의 경우 돌봄(105.7조원)을 중심으로 131.6조원을 소비하였으며, 노동연령층과 노년층은 가정관리(각각 259.2조원, 72.7조원)를 중심으로 각각 281.9조원, 77.4조원을 소비하였다.

연령별로 보면 1인당 가사노동 소비는 돌봄이 많이 필요한 0세에 3,638만원으로 가장 많고, 성년이 되는 20세에 390만원으로 가장 적으며, 이후 완만하게 상승하면서 'L'자형의 모습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애주기에 따른 가사노동 서비스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는 어떤 모습일까?

가사노동 서비스의 소비와 생산의 차이로 인한 가사노동 서비스의 이전을 가구내(함께 사는 가족)와 가구간(함께 살지 않는 가족)으로 구분하여 보면, 가구내에서는 노동연령층과 유년층 간 서비스가 이전되며, 가구간에서는 조부모연령(55~75세)에서 손자녀 연령(0~15세)으로 서비스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준혁 통계개발원장은 “가사노동 서비스의 생산과 소비 구조와 흐름을 성별, 연령별, 가구별로 세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국민시간이전계정이 보육 및 가족돌봄 등 다양한 정부정책 수립과 학술연구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통계개발원 연구기획실	책임자	실 장	박상영 (042-366-7101)
		담당자	사무관	배준형 (042-366-7116)

